

숨겨진 이미지의 두께

앤드류 오웬 전 9. 3~13 담갈러리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서울 낙원동 좁은 골목어귀를 배회하는 작가는, 비를 흠뻑 먹은 채 골목을 겹겹이 뒤덮은 영화포스터를 수거한다. 작가는 수거된 여러 겹의 포스터를 뺏뺏이 말린 후 또 다시 물뿌리개로 적어가며 아주 조금씩 오려내기를 통해 포스터의 숨겨진 정체를 드러낸다. 작가는 여러 겹의 포스터층 두께를 분해하며 이미지를, 숨겨진 시간의미를 발굴해 낸다. 앞장과 붙어있는 뒷장의 숨겨진 배후존재로 인해서 다음 장에 대한 궁금증은 배가되며, 작가의 칼날에 의해 드러난 뒷장은 앞장과 순차적 조화를 이루며 우연성에 의한 시각적 즐거움을 증폭시킨다. 예측불허의 이같은 작업은 잭슨 폴록의 자동기술법과 상충하는데, 다르다면 폴록에게서는 물감의 드리핑(dripping)이 중첩되는 반면 앤드류 오웬(Andrew Owen)에게서는 미세한 카빙(carving)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혼합된다는 것이다.

우연성에 기대어 서 있으면서도, 그의 시간과 공간 들이기는 동양의 선(禪)정신과 부합한다. 포스터에 오려진 물고기, 백합, 연꽃의 과장형태들의 자연성 또한 그러하다. 나아가 세계 각지를 돌며 수집된 일련의 개념미술 작업은 동양을 위시한 다양한 문화적 관심에서 비롯된다. 문화유산과 기념품의 무게두기를 통한 살짝 비꼬기, 펄시콜라 상표가 지나는 권력과 힘의 논리를 태극문양과 비교하는 위트, 서울 지하철에서 산 싸구려 물품의 구매 위치확인이란 치기 등은 조크와 다다적 전복의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이미지의 두께 너머 타문화에 대한 관심(melting pot의 세계로 보기보다 mosaic의 세계로 보는)을 반영한다. 그러기에 포스터의 서구적 상업이미지를 차용하여 동양적 본성을 드러내는 그의 작업은 체질상 국제적 양식의 야만스러운 커다란 덩치를 혐오하며 아기자기한 분재를 키우는 일본인의 심성을 닮아 있다. □

글·김성호(미술평론가)



©The Wells

